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6-3(특집호)

新성장 보고서 2006

2006. 6.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선임연구위원	허 찬 국
연구위원	배 상 근
연구위원	이 태 규
연구위원	안 순 권
연구위원	송 정 석
선임연구원	김 창 배

<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

본원은 지난 5월 본 보고서에서 고유가 및 환율급락이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고 연간 성장률도 4.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부진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향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 경기상황이나 그에 바탕을 둔 전망에 너무 집착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필요한 단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경제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원은 올 초 매일경제신문과 공동기획한 “5%씩 뛰어넘자”라는 연재물을 통해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외부적인 여건 악화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나무가 아닌 숲의 조망을 도와 줄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 이번 특집호에 발간한다.

< 제 목 차 례 >

요약	iv
I. 한국경제의 현주소	3
1. 종합 경제력	3
2. 성장동력 결정요인별 분석	3
3. 제조업	10
4. 서비스업	11
II. 경제 리모델링에 의한 성장효과	16
1. 경제 리모델링의 의미	16
2. 서비스업	16
3. 제조업	19
4.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	22
5. 산업구조의 변화	29
6. 주력산업의 리모델링 효과 및 예측	30
III. 외국의 사례	33
1. 개요	33
2.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요인	36
3. 시사점	42
IV. 경제 리모델링 전략	44
참고문헌	49
<부록> 주요 경제지표	51

< 표 차례 >

<표 1> 주요국의 고령인구 비중 전망	5
<표 2> 노동장비율(실질자본스톡/취업자수) 비교	7
<표 3> 韓·中 품목별 기술격차	9
<표 4>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GDP 비중 추이	12
<표 5> 주요 OECD 국가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비중(2003년 기준)	12
<표 6>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3
<표 7>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비교(2002년)	13
<표 8> 여행 및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 추이	14
<표 9> 유학·연수 경비 및 유학생 수	15
<표 10> 서비스업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가정	17
<표 11> 산업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산업 산업 GDP 추이	18
<표 12> 노동생산성과 1인당 GDP 국제비교	19
<표 13> 제조업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가정	20
<표 14> 산업 리모델링을 통한 제조업 GDP 추이	21
<표 15> 시나리오별 실질GDP 금액과 증가율	23
<표 16> 실질GDP와 지출항목 증가율로 본 경제의 모습	24
<표 17> 산업 리모델링과 1인당 GDP	25
<표 18> 1인당 GDP의 2만 달러, 3만 달러 도달시점	26
<표 19> 시나리오별 한국의 GDP 규모	27
<표 20>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GDP 규모	28
<표 21> 한국의 GDP 순위 전망	28
<표 22>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대GDP 비중 추이	29
<표 23> 12대 주력업종의 리모델링 효과 및 예측	31
<표 24> 부문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1996~2000년 기간)	35
<표 25> 아일랜드의 시기별 정책 비전	36
<표 26> 규제와 경쟁력지수 순위(2003년 기준)	37

< 그림 차례 >

<그림 1>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4
<그림 2> 실업률과 고용률의 추이	5
<그림 3>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기준): 2003년	6
<그림 4>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 2002년	6
<그림 5>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GDP) 추이	7
<그림 6> 서비스수지 추이	14
<그림 7> 서비스업 생산: 리모델링 효과(2000년 가격기준)	18
<그림 8> 제조업 생산: 리모델링 효과(2000년 가격)	21
<그림 9> 실질GDP 금액(2000년 가격)	22
<그림 10> 실질GDP성장률	22
<그림 11> 1인당 GDP	25
<그림 12> 서비스업 비중 추이	29
<그림 13> 제조업 비중 추이	30
<그림 14> 아일랜드와 주요국 실질GDP성장률	33
<그림 15> 아일랜드 실업률	34
<그림 16> 아일랜드 경상수지	35
<그림 17> 경제자유도 순위	38
<그림 18> 규제자유화지수	38
<그림 19> 아일랜드 재정수지	39
<그림 20> GDP증가율에 대한 투자 기여도	40
<그림 21> 아일랜드 실질환율지수	41
<그림 22> 아일랜드 실질이자율	42

1. 한국경제의 현주소 및 문제제기

■종합 경제력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6,800억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
 - 1인당 GDP는 2004년 기준 세계 34위로 G7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G7 평균과 36년간의 격차가 존재
 - 최근 3년간 성장잠재력을 밑도는 저조한 성장 지속으로 자칫 경쟁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

■성장동력 요인별 현황

- 노동: 저출산/고령화 → 투입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 → 성장잠재력 약화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2년 1.78명을 고점으로 하락세 지속
 - UN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 7.4%에서 2050년에는 34.5%로 27.1%p 높아질 전망
 - 200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3%로 캐나다의 78.1%, 미국의 75.8%, 일본의 72.3% 등에 비해 크게 낮음
- 자본: 투자부진 → 노동장비율 하락 → 노동생산성 하락 → 성장잠재력 약화
 - 총고정자본형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약 40%에 이르렀으나 1998년 이후로는 30% 전후에 그치고 있음
 - 노동장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지속 (한국 84.8, 미국 174.2, 일본 184.2, 독일 178.3)
- 총요소생산성(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여전한 가운데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기술추격으로 입지 약화
 - 우리가 우위를 지키고 있는 Mid-Tech 기술력도 조만간 후발개도국들에 의해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음

■제조업과 서비스업 현황

- 제조업의 문제점

- 낮은 생산성: 노동생산성은 2002년 현재 미국의 31.4%에 불과. 주력업종은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 따라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 주력제조업종의 경우에도 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의 견제 본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부가가치 성장을 낙관할 수 없음
- IT, BT, 환경 등 성장전략 업종은 일본의 기술우위와 중국의 비용우위 사이에 끼여 고전

- 서비스업의 문제점

-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61.35%에서 2004년에는 52.81%로 하락
-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7.2%(명목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함.
-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침체된 상태이며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
-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취약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 추세

-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위기적인 상황의 인식을 바탕으로 3만 달러 소득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혁신 방안인 경제 리모델링의 효과를 예측하고 구체적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경제 리모델링에 의한 성장효과 추정

■서비스업 리모델링

- 리모델링이 없을 경우의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생산증가율(A) = 생산성 평균증가율(2000~2005년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평균) + 고용증가율(2000~2005년 서비스업 평균 고용증가율)
- 리모델링이 있을 경우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생산증가율(B) = 생산증가율(A) + 리모델링에 의한 생산성 증가율(향후 10년, 현재 선진국 생산성의 4분의 3 수준에 도달한다고 가정)
- 효과: (B) - (A)
 - 2010년 91조원, 2015년 192조원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대효과

〈표 1〉 산업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산업 산업 GDP 추이

(조원)

	기준치(A)	리모델링(B)	(B) - (A)
2005년	334.2	334.2	
2006년	347.7	354.9	7.2
2007년	361.8	382.5	20.7
2008년	376.4	417.6	41.2
2009년	391.6	456.5	64.8
2010년	407.5	498.9	91.4
2011년	424.0	538.3	114.3
2012년	441.1	575.0	133.9
2013년	458.9	611.6	152.6
2014년	477.5	649.7	172.2
2015년	496.8	688.7	192.0

■제조업 리모델링

- 리모델링이 없을 경우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

- 생산증가율(A) = 생산성 평균증가율(1996~2005년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평균) + 평균 고용증가율(추세적 둔화로 감안)

- 리모델링이 있을 경우 제조업 생산 증가율

- 생산증가율(B) = 생산증가율(A) + 리모델링에 의한 생산성 증가율(향후 10년, 현재의 선진국의 생산성 수준에 도달한다고 가정)

- 효과: (B) - (A)

- 2010년 26조원, 2015년 52조원의 제조업 부가가치 증대효과

〈표 2〉 산업 리모델링을 통한 제조업 GDP 추이

(조원)

	기준치(A)	리모델링(B)	(B) - (A)
2005년	206.9	206.9	0.0
2006년	218.8	220.7	2.0
2007년	231.1	237.0	5.9
2008년	244.0	255.9	12.0
2009년	257.2	276.6	19.3
2010년	271.0	297.4	26.4
2011년	285.2	317.8	32.6
2012년	299.8	337.6	37.8
2013년	314.9	357.6	42.7
2014년	330.4	377.7	47.3
2015년	346.4	398.4	52.0

■ 국내총생산(GDP)

〈표 3〉 시나리오별 실질GDP 금액과 증가율

	실질GDP 금액(조원)			실질GDP증가율(%)		
	기준치		리모델링	기준치		리모델링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효과 반영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효과 반영
2005년	719.8	719.8	719.8	3.80	3.80	3.80
2006년	746.4	756.5	761.9	3.70	5.10	5.85
2007년	773.3	794.3	813.8	3.60	5.00	6.80
2008년	800.4	833.3	876.3	3.50	4.90	7.68
2009년	827.6	873.3	944.7	3.40	4.80	7.80
2010년	854.9	914.3	1,017.4	3.30	4.70	7.70
2011년	882.3	956.4	1,087.1	3.20	4.60	6.85
2012년	909.6	999.4	1,154.2	3.10	4.50	6.17
2013년	936.9	1,043.4	1,221.8	3.00	4.40	5.86
2014년	964.1	1,088.2	1,291.8	2.90	4.30	5.73
2015년	991.1	1,134.0	1,364.0	2.80	4.20	5.58

주: 비관적 전망은 성장률이 매년 0.1%p씩 하락하는 경우, 중립적 전망은 2000~2005년 평균성장률 5.1%를 기준으로 0.1%p씩 하락하는 경우

■ 1인당 GDP

- 리모델링에 성공하면 2007년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

〈표 4〉 1인당 GDP의 2만 달러, 3만 달러 도달시점

	기준치		리모델링 효과 반영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2만 달러 진입	2009년	2008년	2007년
3만 달러 진입	2017년	2014년	2011년

주: 1) 환율: 2006년 이후 불변(1,012원/달러)

2) 물가상승률: 비관적 전망 2.0%, 중립적 전망 2.5%, 리모델링 시나리오 3.0%로 가정

■ 경제규모 순위

- 리모델링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평균 6%대로 상승한다면 한국은 2015년 10대 경제대국이 가능
-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중립적 전망)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순위는 2004년 11위에서 2015년에는 13위로 하락

〈표 5〉 한국의 GDP 순위 전망

2004년	2015년		
	기준치		리모델링 성공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11위	14위	13위	10위

- 주: 1) 다른 나라들은 2000~2004년의 평균증가율을 적용
 2) 러시아의 최근 증가율 24.3%는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여 12.1%를 적용

3. 외국의 사례

■1990년대의 아일랜드 경제의 성공

- 아일랜드는 1994~1998년 기간 중 평균 7% 이상의 실질GDP성장률을 기록
 - 1980년대 노사갈등 및 고임금, 오일쇼크, 국가부채의 증대 등으로 실업률이 16%에 이르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경험

■아일랜드 경제의 성공 요인

-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시기별로 적절한 정책을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 경제사회발전협약 → 작업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협약 → 파트너십 2000 → 공평한 번영을 위한 협약 → 지속적인 전진
- 생산요소의 확보
 -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숙련된 노동력 확보
 - 노사합의를 위한 사회, 국가적 접근
 - 활발한 다국적 기업 유치 등 국제자본의 유입에 주력
- 유리한 대외여건
 - EU 구조기금과 같은 지역경제 차원의 지원
 - 적절한 시기에 EU 및 유로경제권에 진입하여 환율 하락,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취함
- 거시경제 체질 강화
 -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도 세금감면으로 경제주체들의 동기를 고취
 - 투자 비중의 지속적 확대

■ 시사점

- 생산요소의 안정적 확보, 건전한 재정운용
 - 노동요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자본 확보를 위한 과감한 세제 혜택, 외자유치 등에 주력
 - 재정운용에 있어서 정부 지출, 이전, 보조금 비중을 줄이고 정치논리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운영 등을 지양
 -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장기적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

- 장기적인 개방정책 수립 필요
 - 아일랜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입지에 맞게 EU나 유로통화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으며, 이로부터 환율, 금리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었음

4. 경제 리모델링 전략

■ 거시경제 환경의 개선

- 투자활성화

- 반도체, LCD 등의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위탁시설 건설 등과 같은 서비스업 분야에도 대형프로젝트 투자가 필요
- 정부는 기업도시, BTL 등의 추진에 있어 국내외 자본간 차별이 없는 투자여건을 개선
- 원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자의 희망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One-Stop Service 시스템을 구축
- 국내 대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나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
-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

- 인적자원 활용 제고

-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
- 출산율 저하나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육아, 보육 등을 개선
- 임금피크제나 연봉제 등을 활성화하여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자들의 경력활용 방안 마련
- 기업은 불법노동행위 추방, 근로복지 증진,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안정에 노력
- 근로자는 불법파업행위 및 무리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자제

- 총요소생산성 향상

- R&D투자 등의 질적 투자를 확대
-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투자환경을 개선

- 고소득층 및 사회지도층을 경원시하는 ‘반부자정서’ 나 ‘반기업정서’ 등의 사회분 위기를 해소
 - 경제적 상위부문의 이익이 하위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연결고리를 찾는 노력 필요
-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노력
 - 북핵문제 등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 및 해외 국가신인도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정부는 정책혼선을 배제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
 -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기업경영이나 파업행위 등을 철저히 처벌하고 일관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제조업 리모델링 전략

- 기업 자체의 생산성 향상
 - R&D투자 확대
 -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유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 노동일수 확보 및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 강화
 - 선진기술 유치를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강화
- 주력제조업의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선진국과의 수평분업 구도 확대
 - 개도국과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수직분업 구도 유지
 - 개도국 중간기술 및 부품시장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 유지
- 첨단제조업은 기술 주도력 확보 및 표준 선도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도모
 -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하여 신기술을 선점하고 및 조기 시장 확보
 - 서비스, 신기술이 융합된 세분화된 신산업 출현에 대응해서 친환경 제품, 블록버스터 신약, 혁신적 신소재 기반제품 등을 상용화

■서비스산업 리모델링 전략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
 - 금융·회계·법률·컨설팅·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
- 차별화 및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고급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막는 세제 등을 개편
- 지나친 공공성 강조를 지양하고 시장경쟁원리 도입
 - 교육·의료 등에 영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하고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경쟁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
- 시장개방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고 경쟁을 촉진
 -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력을 위한 교육, 의료 등의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
- 유통·물류·E-Business 등 인프라성 서비스산업의 수요기반 확대
 -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국내 수요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급성장하는 중국 및 동남아의 비즈니스 서비스수요를 선점

新성장 보고서 2006

- I. 한국경제의 현주소
- II. 경제 리모델링에 의한 성장효과
- III. 외국의 사례
- IV. 경제 리모델링 전략

I. 한국경제의 현주소

1. 종합 경제력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6,800억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
 - 최근 3년간 성장잠재력을 밑도는 저조한 성장지속으로 선진국 추격은커녕 자칫 경쟁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
 -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소위 브릭스(BRICs) 국가의 급성장
 - 1인당 GDP는 2004년 기준 세계 34위로 G7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
 - 대부분 선진국은 1만 달러 달성 이후 2만 달러로 도약하는 데에 5~10년이 걸렸으나 한국은 1만 달러를 달성한 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국민소득의 증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위기적인 상황의 실태를 분석하고 10년 내 3만 달러 소득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혁신 방안인 경제 리모델링의 효과를 예측하고 구체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성장동력 결정요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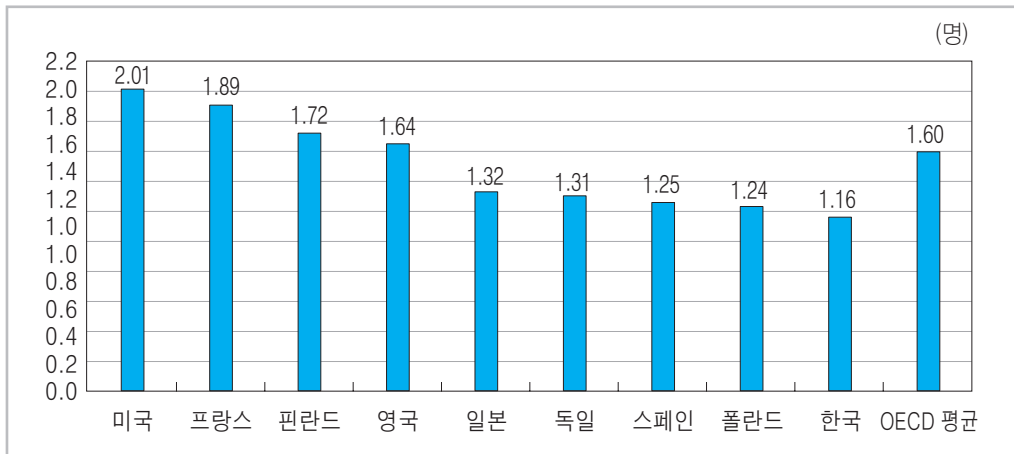
- 경제의 총체적 생산함수를 가정할 경우,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노동(L)과 자본(K) 등 생산요소의 투입과 투입-산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A)으로 나눌 수 있으며
 - 총요소생산성은 다시 기술(T_t) 등에 의해 좌우
 - $Y_t = f(L_t, K_t, A_t)$, $A_t = g(T_t)$
- 경제의 장기적 성장동력을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성장의 결정요인별로 살펴보고자 함

가. 노동

■ 저출산/고령화 → 투입노동력의 양적 질적 저하 → 성장잠재력 약화

-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2년 1.78명을 고점으로 이후 하락
 - 200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
 - ※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

<그림 1>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 출산율 저하 등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될 전망
 - UN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 7.4%에서 2050년에는 34.5%로 27.1%p 높아질 전망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름

<표 1> 주요국의 고령인구 비중 전망

	2000년(A)	2050년(B)	B-A(%p)
한국	7.4%	34.5%	27.1
미국	12.3%	20.6%	8.3
영국	15.9%	23.2%	7.3
일본	17.2%	35.9%	18.7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 낮은 인력자원 활용 → 성장잠재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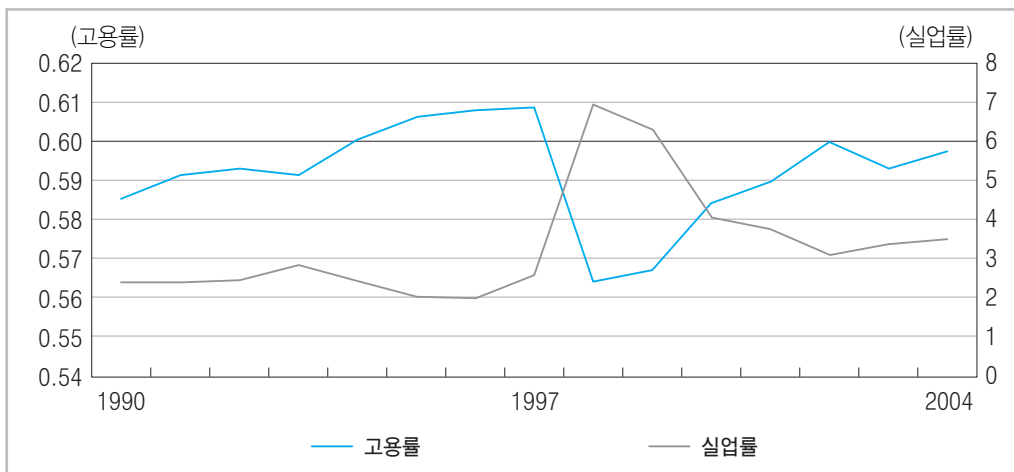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인력활용도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음

- 2004년 고용률은 0.598로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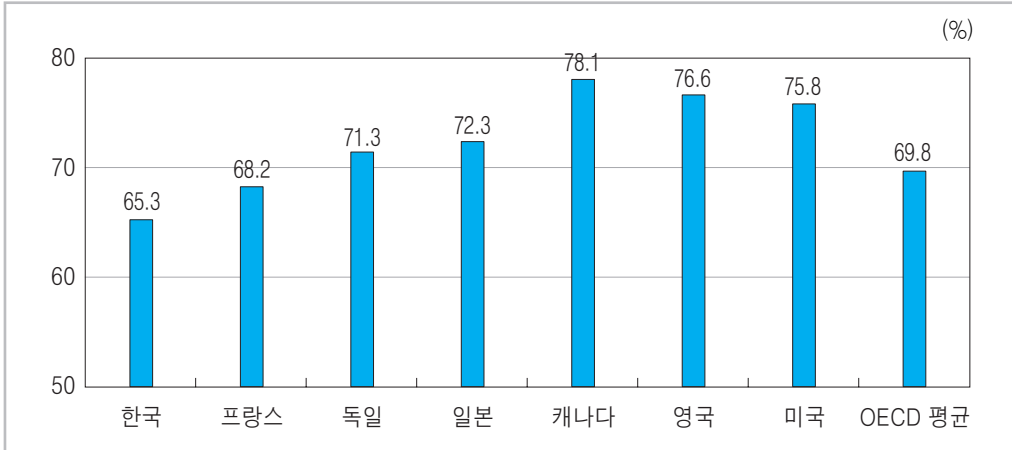
-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으로 측정

- 200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3%로 캐나다의 78.1%, 미국의 75.8, 일본의 72.3% 등에 비해 크게 낮음

<그림 2> 실업률과 고용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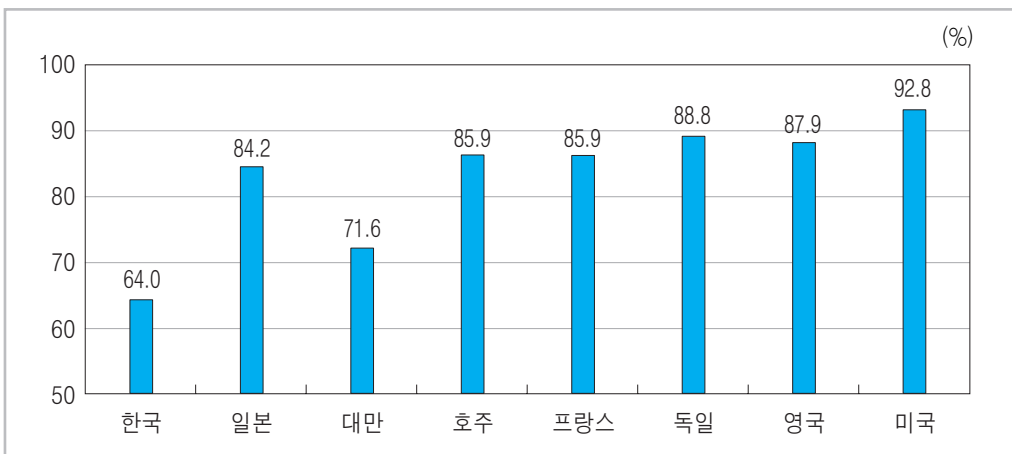
〈그림 3〉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기준): 2003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음
 -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64.0%로 미국 92.8%, 일본 84.2%는 물론이고 대만 71.6%보다도 낮음

〈그림 4〉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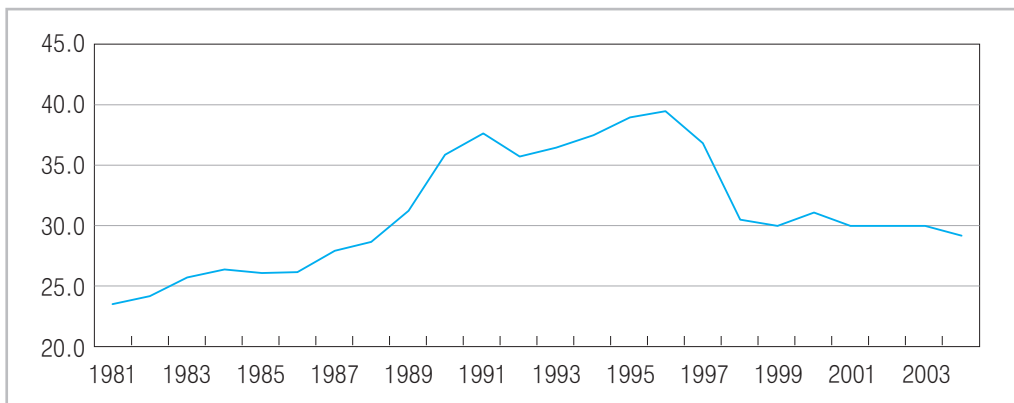
나. 자본

■ 투자부진은 노동장비율을 하락시키고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세의 둔화를 가져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킴

- 외환위기 이후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국민소득 계정상의 총고정자본형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투자율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약 40%에 이르렀으나 1998년 이후로는 10%p 가까이 하락한 30% 전후로 그치고 있음

〈그림 5〉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GDP) 추이



- 투자부진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장비율이 개선되고 있지 못함

〈표 2〉 노동장비율(실질자본스톡/취업자수)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노동장비율	84.8(1.0)	174.2(2.1)	184.2(2.2)	178.3(2.1)	157.1(1.9)

주: 1) 2000년말 기준

2) 실질자본스톡은 1995년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1995년 당시의 환율을 적용

3) () 안은 한국을 1.0으로 하였을 때 다른 나라의 배수

자료: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2003.

■ 투자부진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또한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많은 경우 기술혁신은 새로운 투자와 연관되어 있음. 즉 속도가 빠른 신형 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컴퓨터에 내재(embodied technological innovation)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

다. 총요소생산성

■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기술추격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여전

- 첨단 핵심기술 부문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상황
- 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위를 지키고 있는 Mid-Tech 기술력도 조만간 후발개도국들에 의해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음
 - 산업자원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디지털TV와 DVD 플레이어 기술은 1.5년, MP3 플레이어는 2년, 냉연강판은 4년, 기계류는 3~5년, 남성의류는 3~4년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이미 중국에 뒤지고 있으며 기술격차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2010년경에는 양국의 기술수준이 거의 대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3〉 韓·中 품목별 기술격차

(년)

업종	품목	기술		산업	
		현재	2010	현재	2010
디지털 가전	디지털TV	1.5	0	1	△0.5
	MP3 플레이어	2	1	△0.5	△2
	DVD 플레이어	1.5	0	1.5	0.5
철강	냉연강판	4.5	1	2	△1
	후판	1	0.5	4	0
	아연도금강판	2	0.5	2	0.5
	강관	1.5	0.5	1	0.5
금형	플라스틱 금형	3	1	2	△0.5
	프레스 금형	5	3	3	0.5
	다이캐스팅	5	5.5	4	2.5
건설 기계	휠 로우더	7	2.5	1.5	0
	지게차	5.5	2.5	2.5	0.5
	유압브레이커	17.5	3.5	7	1.5
자동차 부품	Wire Harness	2.5	1.5	2.5	2
	클러치 장치	1.5	2	3	1.5
	Control Cable	3.5	1	2	0
남성 의류	우븐 의류	4	2.5	10	△5
	니트 의류	2.5	4	△25	△11
	가죽 및 모피류	6.5	3.5	△14.5	△9.5

주: 1) 기술경쟁력: 설계기술, 생산기술, 시험평가기술 및 품목 특성기술 등을 종합

2) 산업경쟁력: 가격, 생산, 품질, 서비스, 납기, 산업특성 등을 종합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5. 2. 22.

3. 제조업

■주력산업 육성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생산기반 보유

- 현재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상위 수준
 - 조선산업 생산량은 세계 1위, 반도체 산업은 세계 3위(D램 부문은 1위), 석유화학은 4위, 철강은 5위, 자동차 부문은 6위를 기록
 - 2003년 미국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주력업종의 13개 기업이 포함

■하지만 낮은 생산성이 취약점

-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2년 현재 미국의 31.4%에 불과
 - 조선산업은 미국의 1.3배이고 철강산업은 미국의 72.8%이나, 자동차, 일반기계, 의류 산업은 미국의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섬유나 화학 산업은 매우 뒤쳐져 있음
 - IT산업도 전통주력산업의 2.5배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27%에 불과

■경쟁 격화로 주력업종의 위치도 약화될 우려

- 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의 견제 본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부가가치 성장을 낙관할 수 없음
- 중국 등 경쟁국들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
 - 한국의 G7국가 시장점유율은 1990년대 이후 2% 내외에 머물고 있으나 중국은 점유율이 급상승하여 한국과의 격차가 4배 이상
- 중국 등 신시장이 주요 수출시장이기에는 하나 중국의 자급률 증대 및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 수출증가세 지속이 한계에 부딪힐 전망

- 주요 업종의 핵심부품 및 자본재를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수출 경기가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저조
- IT, BT, 환경 등 성장전략 업종은 일본의 기술우위와 중국의 비용우위 사이에 끼어 고전¹⁾
- IT의 경우 한국은 반도체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이고 있으나 후발주자의 모방이 비교적 쉬운 분야가 많아 기술우위 및 시장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음
- BT, 환경산업은 아직 선진국 수준과 기술격차가 크며 BT의 경우 황우석 파동의 여파로 세계수준의 기술우위 유지가 어려운 실정
- 지적재산권 확보의 미흡 등으로 향후 기술 선점에 어려움이 예상

4. 서비스업

-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이 갈수록 하락
-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는 61.35%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2004년에는 52.81%를 기록
 - 서비스업의 성장률도 추세적으로 하락
-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에는 7.56%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31.74%를 기록

1) 선진산업강국 기획단 & A.T.Kearney(2005) 참조

〈표 4〉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GDP 비중 추이

(%)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서비스산업	61.35	57.39	54.54	54.39	54.85	55.41	54.59	52.81
제조업	7.56	17.42	23.75	29.42	28.91	29.14	29.83	31.74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미달

-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7.2%(명목기준)
 - 이는 룩셈부르크의 83.1%, 미국의 77.3%(2001년)뿐 아니라 OECD 평균인 68.8%에도 미달
-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3.5%
 - 미국 78.8%, 영국 78.3%에 비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68.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표 5〉 주요 OECD 국가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비중(2003년 기준)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OECD 평균
부가가치 비중	57.2	68.6	77.3	70.2	73.1	73.6	83.1	70.7	68.8
고용 비중	63.5	66.0	78.8	70.4	78.3	73.9	77.2	55.5	68.6

주: 영국은 2002년 기준, 미국은 2001년 기준임
 자료: OECD

■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침체된 상태이며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

- 1970~2004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4.1% 증가하였으며 제

조업의 경우 7.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서비스업(전기/가스/수도 포함)의 증가율은 1.7%에 그침

〈표 6〉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경제 전체
1970~2004년	4.7	5.8	7.5	1.6	1.7	4.1
1970~1980년	1.6	3.9	6.8	-1.1	1.2	3.2
1980~1990년	6.9	4.5	6.4	5.3	2.7	5.5
1990~2004년	5.4	8.1	8.7	0.9	1.4	3.8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2005.

- 2002년 현재 한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미국은 216.9, 일본은 183.2, 프랑스가 190.5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에 그침

〈표 7〉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비교(2002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생산성	100.0	216.9	183.2	166.0	190.5	198.2

주: 미국은 200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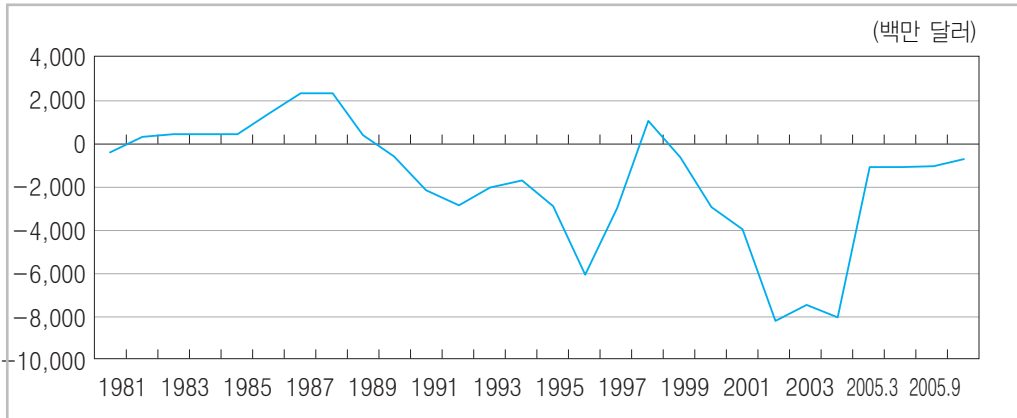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박진수(2005)에서 재인용

■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취약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

- 서비스수지는 1980년대의 흑자 이후 1990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 잠시 10억 달러 흑자를 본 후 다시 적자로 돌아선 이후 적자규모는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는 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특히 여행수지가 63억 달러, 사업서비스수지가 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그림 6> 서비스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8> 여행 및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 추이

(백만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월	6월	9월	11월
여행수지	-297.6	-1,233.0	-4,528.8	-4,744.6	-6,281.2	-622.4	-856.5	-804.1	-695.2
사업서비스수지	-3,128.3	-2,848.7	-3,601.8	-4,362.1	-5,037.4	-418.5	-511.7	-551.0	-391.5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국내 교육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취약으로 해외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학경비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음
 - 동반가족의 생활비를 포함한 총 유학·연수 경비는 2003년 기준으로 61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GDP의 1% 수준에 달함
 - 2004년 기준 IMD 교육경쟁력 순위는 60개국 중 44위이며 특히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59위로 최하위 수준
- 관광·골프·유학·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소비성 지출은 연간 120억 달러

(13조원)를 상회

- 2003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은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68개국 중 31위(산업정책연구원 조사)
- 해외원정 진료비 규모를 연간 1조원 정도로 추정*

* 송건용,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쟁점 논의」, 2003.

〈표 9〉 유학·연수 경비 및 유학생 수

(억 달러, 천 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유학·연수 경비 지급	8.3	9.1	9.6	10.7	14.3	18.5	24.9 ¹⁾
유학생 수	-	120.2	-	149.9	-	159.9	-

주: 1) 1~9월 중

자료: 한국은행,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2005)에서 재인용

Ⅱ. 경제 리모델링에 의한 성장효과

1. 경제 리모델링의 의미

- 본 연구에서는 경제 리모델링을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술·설비투자와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총체적인 혁신 활동으로 정의
 - 성장잠재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Δ 총요소생산성 Δ 노동투입량 Δ 자본투입량을 극대화해 성장엔진을 강력한 고출력형 엔진으로 교체해야 함을 의미
 - 즉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혹은 기술) 등 성장의 결정요인별 혁신이 필요
- 이하에서는 리모델링이 성공할 경우의 우리 경제의 모습을 추정해 보기로 함

2. 서비스업

- 기본 가정
 - 리모델링이 없을 경우의 서비스업 생산성
 - 2000년 이후 6년간(2000~2005년) 중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평균(약 0.81%)을 리모델링이 없을 경우의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로 가정
 - 리모델링이 있을 경우의 서비스업 생산성
 - 향후 10년간 생산성을 50% 향상시킨다고 가정.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성 수준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10년 후에는 현재 선진국 생산성의 4분의 3 수준에 도달한다고 가정
 - 생산성 향상의 속도는 처음에는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그 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
 -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분은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생산성 증가율(전체 증가율)에서 생산성 평균증가율(0.81%)을 차감하여 구함

〈표 10〉 서비스업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가정

	서비스산업 생산성			
	지수	전체 증가율	평균증가율(%)	리모델링에 의한 증가율(%)
기준년도	100.00			
1차년도	102.90	2.90	0.81	2.09
2차년도	107.45	4.42	0.81	3.61
3차년도	113.67	5.79	0.81	4.98
4차년도	120.38	5.90	0.81	5.09
5차년도	127.48	5.90	0.81	5.09
6차년도	133.26	4.53	0.81	3.72
7차년도	137.94	3.51	0.81	2.70
8차년도	142.15	3.05	0.81	2.24
9차년도	146.32	2.94	0.81	2.13
10차년도	150.29	2.71	0.81	1.90

■ 리모델링 효과

- 리모델링이 없을 경우의 서비스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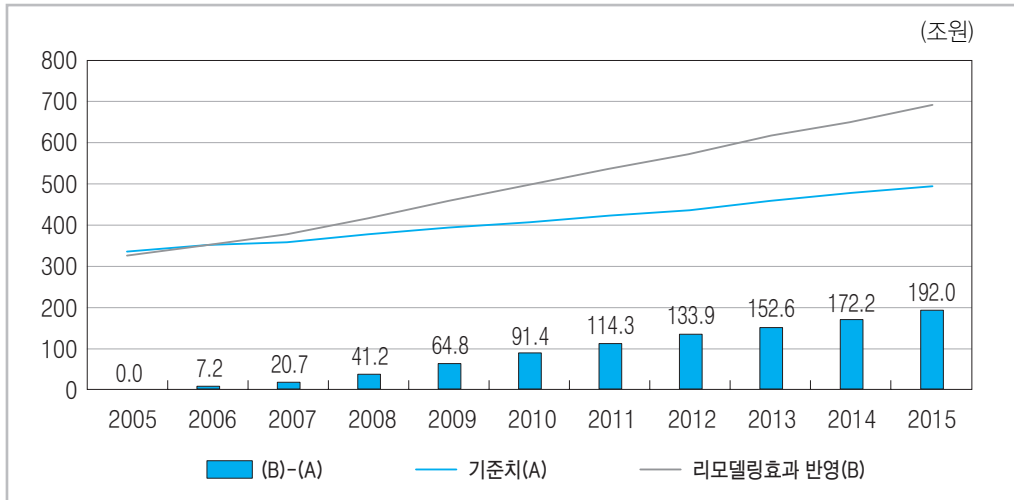
• 생산증가율(A) = 생산성 평균증가율 + 고용증가율
 = 0.81% + 3.21%(2000~2005년 서비스업 평균 고용증가율)

- 리모델링이 있을 경우 서비스 생산 증가율

• 생산증가율(B) = 생산성 평균 증가율 + 고용증가율
 + 리모델링에 의한 생산성 증가율

- 효과: (B) - (A)

<그림 7> 서비스업 생산: 리모델링 효과(2000년 가격기준)



자료: 한국은행

<표 11> 산업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산업 산업 GDP 추이

(조원)

연도	기준치(A)	리모델링(B)	(B)-(A)
2005	334.2	334.2	
2006	347.7	354.9	7.2
2007	361.8	382.5	20.7
2008	376.4	417.6	41.2
2009	391.6	456.5	64.8
2010	407.5	498.9	91.4
2011	424.0	538.3	114.3
2012	441.1	575.0	133.9
2013	458.9	611.6	152.6
2014	477.5	649.7	172.2
2015	496.8	688.7	192.0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3. 제조업

■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음

- 2000년 현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44.0)은 선진 7개국 평균 생산성(77.1)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7% 수준
 - 미국의 생산성에 비해서는 약 44%에 불과. 이는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90.7백만원, 한국은 39.9백만원(KDI,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2005. 3)을 의미

〈표 12〉 노동생산성과 1인당 GDP 국제비교

(미국=100, 2000년 기준)

	제조업	1인당 GDP(달러)
한국	44.0	9,670
캐나다	74.0	22,801
독일	63.5	22,647
프랑스	80.8	21,770
영국	65.4	24,706
이탈리아	50.6	18,454
일본	105.2	37,862
미국	100.0	34,897
G7 평균	77.1	24,247

자료: KDI,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2004. 12.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04.

■ 기본 가정

- 리모델링이 없을 경우의 제조업 생산성
 - 지난 10년간(1996~2005년) 중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평균(약 4.30%, 자료: 생산성 본부)을 리모델링이 없을 경우의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로 가정

- 리모델링이 있을 경우의 제조업 생산성
 - 10년 내에 현재의 선진국의 생산성 수준에 도달한다고 가정
 - 전체 생산성 향상의 속도와 리모델링을 통한 생산성 향상분은 서비스업에서 가정한 것은 같은 방식 적용

〈표 13〉 제조업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가정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	전체 증가율	추세성장분(%)	리모델링에 의한 성장분(%)
기준년도	44.0			
1차년도	46.3	5.25	4.30	0.95
2차년도	49.1	5.99	4.30	1.69
3차년도	52.4	6.71	4.30	2.41
4차년도	56.0	6.89	4.30	2.59
5차년도	59.6	6.48	4.30	2.18
6차년도	63.1	5.90	4.30	1.60
7차년도	66.5	5.40	4.30	1.10
8차년도	70.0	5.18	4.30	0.88
9차년도	73.5	5.00	4.30	0.70
10차년도	77.1	4.95	4.30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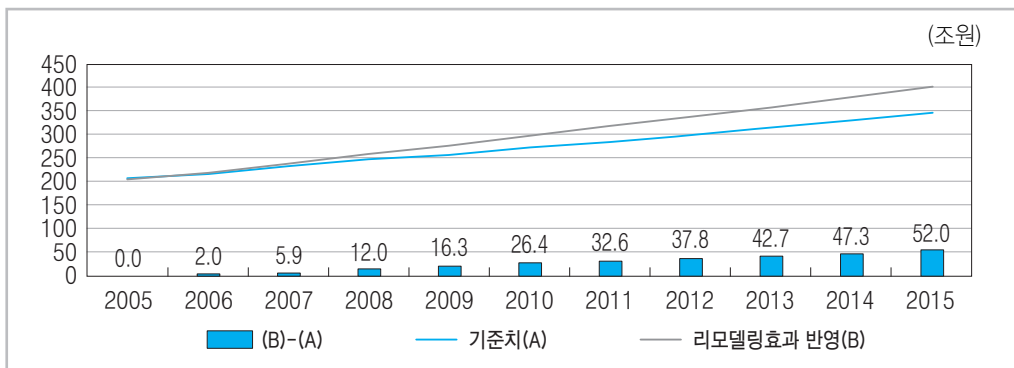
■ 리모델링 효과

- 리모델링이 없을 경우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
 - 생산증가율(A) = 생산성 평균증가율 + 고용증가율
= 4.30% + 3.21%(추세적 둔화)
- 리모델링이 있을 경우 제조업 생산 증가율
 - 생산증가율(B) = 생산성 평균 증가율 + 고용증가율
+ 리모델링에 의한 생산성 증가율
- 효과: (B) - (A)

※ 고용증가율(추세적 하락)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00~2005년 중 제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1.4%)을 기준으로 2006년 이후 제조업 고용증가율을 매년 0.1%p씩 하향 조정

<그림 8> 제조업 생산: 리모델링 효과(2000년 가격)



자료: 한국은행

<표 14> 산업 리모델링을 통한 제조업 GDP 추이

(조원)

Year	기준치(A)	리모델링(B)	(B)-(A)
2005년	206.9	206.9	0.0
2006년	218.8	220.7	2.0
2007년	231.1	237.0	5.9
2008년	244.0	255.9	12.0
2009년	257.2	276.6	19.3
2010년	271.0	297.4	26.4
2011년	285.2	317.8	32.6
2012년	299.8	337.6	37.8
2013년	314.9	357.6	42.7
2014년	330.4	377.7	47.3
2015년	346.4	398.4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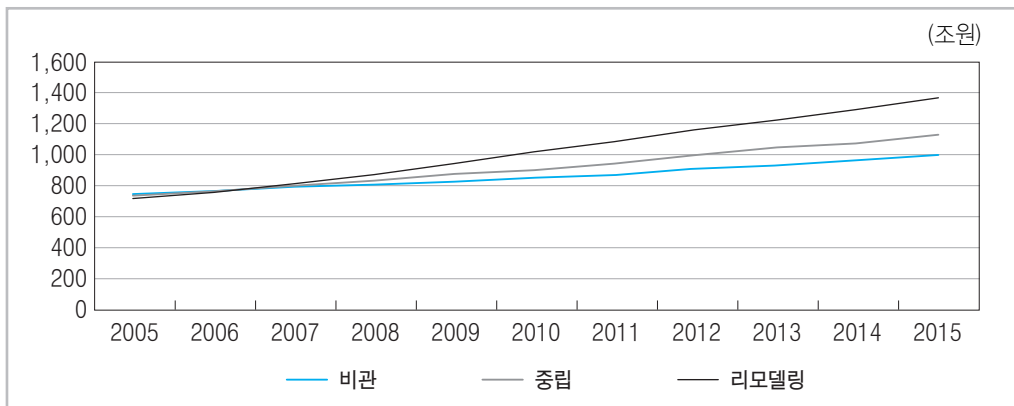
4.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

■ 국내총생산(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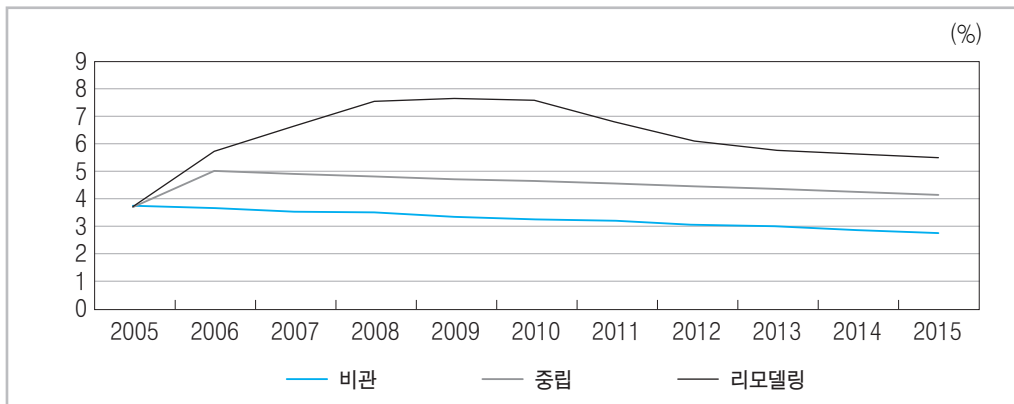
- 기본 가정

- 비관적: 성장률이 '05년 3.8%를 고점으로 매년 0.1%p씩 하락
- 중립적: 2000~2005년 평균성장률 5.1%를 기준으로 0.1%p씩 하락
- 리모델링: 리모델링에 의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향상

<그림 9> 실질GDP 금액(2000년 가격)



<그림 10> 실질GDP성장률



〈표 15〉 시나리오별 실질GDP 금액과 증가율

	실질GDP 금액(조원)			실질GDP증가율(%)		
	기준치		리모델링 효과 반영	기준치		리모델링 효과 반영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2005년	719.8	719.8	719.8	3.80	3.80	3.80
2006년	746.4	756.5	761.9	3.70	5.10	5.85
2007년	773.3	794.3	813.8	3.60	5.00	6.80
2008년	800.4	833.3	876.3	3.50	4.90	7.68
2009년	827.6	873.3	944.7	3.40	4.80	7.80
2010년	854.9	914.3	1,017.4	3.30	4.70	7.70
2011년	882.3	956.4	1,087.1	3.20	4.60	6.85
2012년	909.6	999.4	1,154.2	3.10	4.50	6.17
2013년	936.9	1,043.4	1,221.8	3.00	4.40	5.86
2014년	964.1	1,088.2	1,291.8	2.90	4.30	5.73
2015년	991.1	1,134.0	1,364.0	2.80	4.20	5.58

주: 비관적 전망은 성장률이 매년 0.1%p씩 하락하는 경우, 중립적 전망은 2000~2005년 평균성장률 5.1%를 기준으로 0.1%p씩 하락하는 경우

■ 지출항목별 증가율 조합

- 리모델링 효과가 반영된 GDP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한 지출항목의 다양한 조합 중에서 투자증가에 초점을 맞춘 조합은 다음과 같음

- 민간소비는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
- 투자는 성장률을 약 2%p 상회하는 수준
- 수출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8~10%의 증가율 지속

※ 투자증가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과거 투자 증가세: 1980~1990년 연평균 12.2%, 1991~1997년 연평균 8.5%)

〈표 16〉 실질GDP와 지출항목 증가율로 본 경제의 모습

(%)

	실질GDP	민간소비	투자	수출	수입
2005년					
2006년	5.9	5.6	7.9	8.2	9.4
2007년	6.8	6.8	8.8	9.1	10.3
2008년	7.7	7.5	9.7	10.0	11.2
2009년	7.8	7.9	9.8	10.1	11.5
2010년	7.7	7.6	9.7	10.0	11.2
2011년	6.8	6.8	8.8	9.1	10.3
2012년	6.2	6.3	8.2	8.5	9.7
2013년	5.9	5.9	7.9	8.2	9.4
2014년	5.7	5.6	7.7	8.0	9.2
2015년	5.6	5.5	7.6	7.9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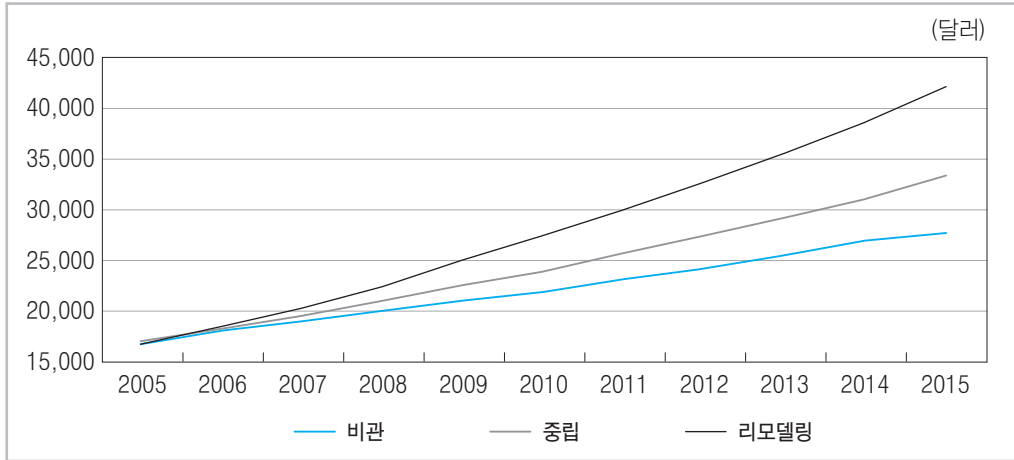
■ 1인당 GDP

– 주요 가정

- 환율에 대한 가정: 2006년 이후 불변(1,012원/달러)
- 물가에 대한 가정
 - 비관적 시나리오: 2.0%
 - 중립적 시나리오: 2.5%
 - 리모델링 시나리오: 3.0%

– 리모델링에 성공하면 2007년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

〈그림 11〉 1인당 GDP



〈표 17〉 산업 리모델링과 1인당 GDP

(USD)

	기준치		리모델링 효과 반영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2005년	16,836	16,836	16,836
2006년	17,927	18,258	18,478
2007년	18,867	19,571	20,246
2008년	19,843	20,964	22,369
2009년	20,853	22,438	24,750
2010년	21,898	23,999	27,362
2011년	22,978	25,649	30,019
2012년	24,098	27,399	32,739
2013년	25,258	29,251	35,613
2014년	26,458	31,210	38,707
2015년	27,699	33,281	42,028

〈표 18〉 1인당 GDP의 2만 달러, 3만 달러 도달시점

	기준치		리모델링 효과 반영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2만 달러 진입	2009년	2008년	2007년
3만 달러 진입	2017년	2014년	2011년

주: 1) 환율: 2006년 이후 불변(1,012원/달러)

2) 물가상승률: 비관적 전망 2.0%, 중립적 전망 2.5%, 리모델링 시나리오 3.0%로 가정

■ GDP로 본 경제규모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GDP는 약 6,800억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
- 10년 후 GDP 순위를 전망하기 위한 가정
 -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2000~2004년의 평균증가율을 적용
 - 단, 러시아는 12.1%를 적용(사실 러시아의 최근 증가율 24.3%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 그대로 적용하면 2015년에 러시아가 2위가 됨)
- 2015년 우리나라의 GDP 순위
 - 우리나라가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중립적 전망)을 유지할 경우 2015년 우리나라의 순위는 13위권으로 하락
 - 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평균 6%대로 상승한다면 한국은 2015년 10대 경제대국이 가능

〈표 19〉 시나리오별 한국의 GDP 규모

(십억 달러)

	기준치(비관)	기준치(중립)	리모델링 반영
2005년	813.09	813.09	813.09
2006년	869.39	885.44	896.12
2007년	918.70	952.96	985.80
2008년	969.87	1,024.64	1,093.36
2009년	1,022.90	1,100.67	1,214.05
2010년	1,077.79	1,181.21	1,346.76
2011년	1,134.52	1,266.44	1,482.16
2012년	1,193.09	1,356.51	1,620.88
2013년	1,253.46	1,451.61	1,767.34
2014년	1,315.61	1,551.87	1,924.69
2015년	1,379.49	1,657.48	2,093.10

<표 20>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GDP 규모

순위	국가	2015년 GDP(십억 달러)
1	United States	19,603
2	China	5,055
3	Japan	5,022
4	United Kingdom	4,952
5	Germany	4,734
6	France	4,113
7	Italy	3,598
8	Spain	2,967
9	Canada	2,407
10	Russian Federation	2,061
11	India	1,809
12	Australia	1,686
13	Mexico	1,431
14	Netherlands	1,304
15	Indonesia	986
16	Turkey	900
17	Brazil	811
18	Ireland	773

<표 21> 한국의 GDP 순위 전망

2004년	2015년		
	기준치		리모델링 성공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11위	14위	13위	10위

주: 1) 다른 나라들은 2000~2004년의 평균증가율을 적용

2) 러시아의 최근 증가율 24.3%는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여 12.1%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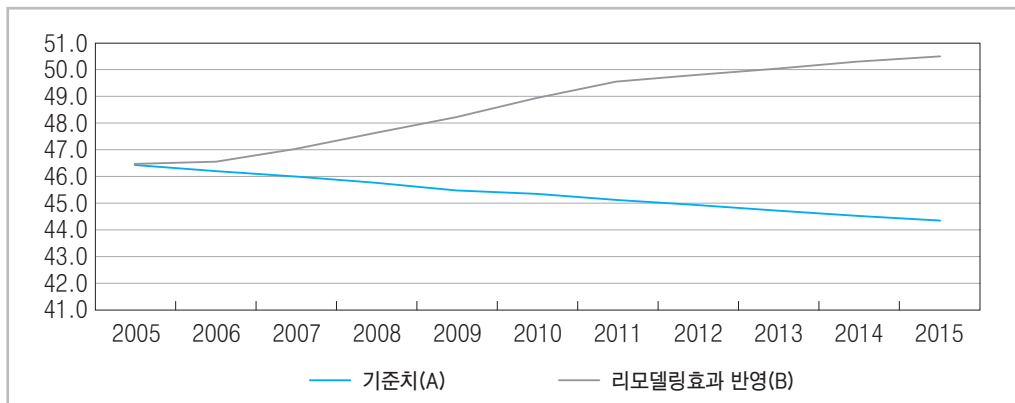
5. 산업구조의 변화

- 산업 리모델링 후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05년 46.4%에서 10년 후인 2015년에는 50.5%로 상승.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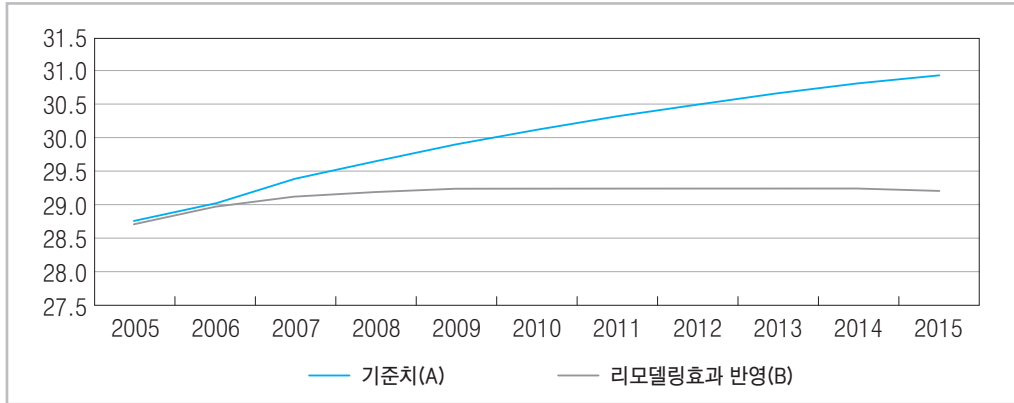
〈표 22〉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대GDP 비중 추이

	서비스업		제조업	
	기준치(A)	리모델링 효과 반영(B)	기준치(A)	리모델링 효과 반영(B)
2005년	46.4	46.4	28.7	28.7
2006년	46.2	46.6	29.1	29.0
2007년	46.0	47.0	29.4	29.1
2008년	45.7	47.7	29.6	29.2
2009년	45.5	48.3	29.9	29.3
2010년	45.3	49.0	30.1	29.2
2011년	45.1	49.5	30.3	29.2
2012년	44.9	49.8	30.5	29.3
2013년	44.7	50.1	30.7	29.3
2014년	44.5	50.3	30.8	29.2
2015년	44.4	50.5	30.9	29.2

〈그림 12〉 서비스업 비중 추이



〈그림 13〉 제조업 비중 추이



6. 주력산업의 리모델링 효과 및 예측

■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에는 주력 12대 업종의 생산성 향상이 관건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업종(자동차, 선박, 철강, 가전, 반도체)을 중심으로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조속히 줄여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음
- 주력산업의 리모델링 효과 및 예측에 관한 분석을 위해,
 - 업종별 생산성 추세분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도별 생산성 증가율 평균치를 사용
 - 리모델링 효과를 포함한 생산성 추세분은 생산성 추세분에 제조업의 리모델링 효과분(1.47%)을 더한 생산성 증가율
- 선진국의 제조업의 생산성이 2002년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격차를 10년 내 해소할 경우
 - 리모델링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성 증가율 추세를 유지할 경우 12대 주력업종의 생산성은 평균 104.2를 기록, 2002년 미국 평균 수준을 추월
 - 리모델링할 경우 12대 주력업종의 생산성은 평균 119.0을 기록, 2002년 미국 평균 수준을 추월

-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성도 매년 상승추세이므로 선진국 추격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리모델링 노력이 필요
- 선진국의 제조업의 생산성이 2002년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산업 리모델링을 한다면,
 - 2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는 목표 연도인 2008년의 업종별 생산성은 평균 57.6을 기록
 - 3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는 목표 연도인 2012년의 업종별 생산성은 평균 86.9를 기록할 전망
- 미국 및 일본과의 업종별 생산성 격차해소에 걸리는 연수는 리모델링하지 않을 경우와 할 경우로 나누어 분석

〈표 23〉 12대 주력업종의 리모델링 효과 및 예측

산업	생산성 추세분	리모델링 효과를 포함한 생산성 추세분	노동생산성		
			한국	미국	일본
자동차	10.4	11.9	26.5	100.0	160.0
선박	6.8	8.2	130.0	100.0	250.0
일반기계	7.0	8.5	16.1	100.0	89.9
섬유	5.0	6.4	22.0	100.0	-
의복	8.2	9.7	9.4	100.0	36.4
철강	9.8	11.2	72.6	100.0	121.0
석유화학	14.5	16.0	35.8	100.0	-
정밀화학	6.9	8.4	35.8	100.0	-
가전	8.0	9.5	69.2	100.0	73.4
컴퓨터	14.4	15.9	28.1	100.0	55.6
반도체	10.2	11.7	32.8	100.0	52.9
전자부품	12.3	13.8	32.8	100.0	52.9
평균	9.5	10.9	42.6	100.0	99.1

산업	생산성 추세분	리모델링	리모델링X	리모델링O	리모델링O	리모델링O	리모델링X	리모델링O	리모델링X	리모델링O
		효과를 포함한 생산성 추세분	10년 후 생산성	10년 후 생산성	2만 달러 달성 시 생산성	3만 달러 달성 시 생산성	미국과의 격차해소에 필요한 연수	미국과의 격차해소에 필요한 연수	일본과의 격차해소에 필요한 연수	일본과의 격차해소에 필요한 연수
자동차	10.4	11.9	71.3	81.4	37.1	58.1	13.4	11.8	18.2	16.0
선박	6.8	8.2	249.9	286.6	164.8	226.1	-4.0	-3.3	10.0	8.3
일반기계	7.0	8.5	31.8	36.4	20.6	28.5	26.9	22.4	25.3	21.1
섬유	5.0	6.4	35.7	41.1	26.5	34.1	31.2	24.3	-	-
의복	8.2	9.7	20.7	23.7	12.4	18.0	29.9	25.6	17.1	14.6
철강	9.8	11.2	184.1	210.3	99.9	152.9	3.4	3.0	5.5	4.8
석유화학	14.5	16.0	139.0	157.9	55.9	101.2	7.6	6.9	-	-
정밀화학	6.9	8.4	69.9	80.1	45.6	62.9	15.4	12.8	-	-
가전	8.0	9.5	149.2	170.7	90.7	130.2	4.8	4.1	0.8	0.7
컴퓨터	14.4	15.9	107.7	122.4	43.7	78.7	9.4	8.6	5.1	4.6
반도체	10.2	11.7	86.6	98.9	45.7	71.0	11.5	10.1	4.9	4.3
전자부품	12.3	13.8	104.5	119.0	48.3	80.9	9.6	8.6	4.1	3.7
평균	9.5	10.9	104.2	119.0	57.6	86.9	13.3	11.2	10.1	8.7

주: 노동생산성은 산업연구원의 ISTANS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며 200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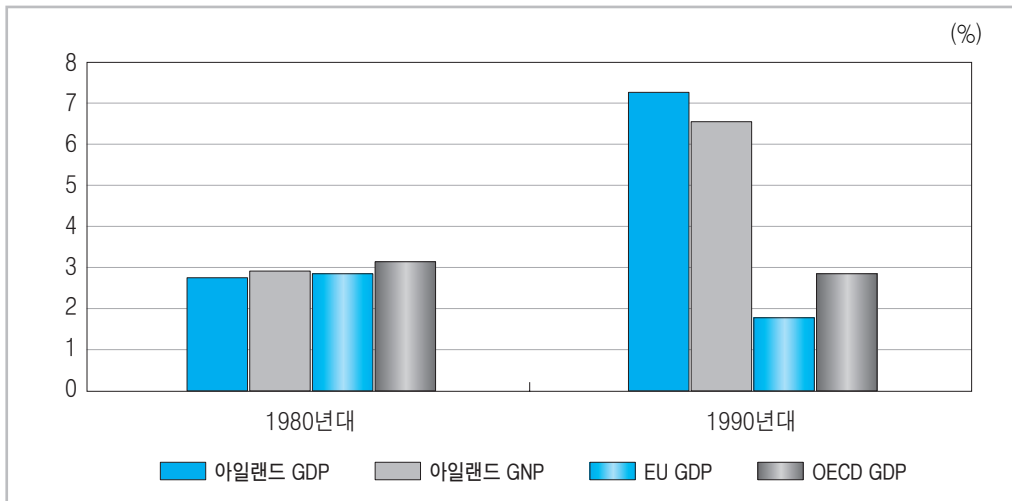
Ⅲ. 외국의 사례

1. 개요

■ 1990년대의 아일랜드 경제의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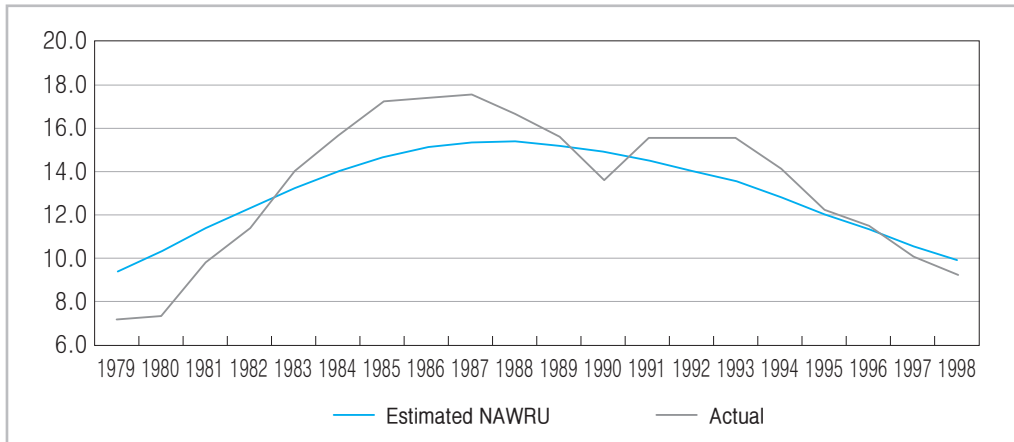
- 1980년대 아일랜드 경제는 내부적으로는 강경 성향의 노조로 인한 노사갈등 및 고 임금, 대외적으로는 오일쇼크, 국가부채의 증대로 인한 IMF 관리를 받는 등 불안 요인이 확산되고 있었음
 -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는 GDP의 12%에 달했으며 실업률 16%를 상회하였음
- 1990년대 들어 아일랜드는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아일랜드의 1991~2001년 기간 중 GDP와 GNP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7%로 OECD나 EU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함

〈그림 14〉 아일랜드와 주요국 실질GDP성장률



- 1980년대 중반에 18%까지 근접하던 실업률도 1990년대초부터 실제 실업률과 “안정적 임금상승률에 대응하는 실업률”(NAWRU)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냄

<그림 15> 아일랜드 실업률



자료: IMF 아일랜드 보고서(1999)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증가
 - 1996~2000년 기간 중 아일랜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4%로 동 기간 중 주요 선진국을 크게 능가함
 - 특히 이 기간 중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7.3%로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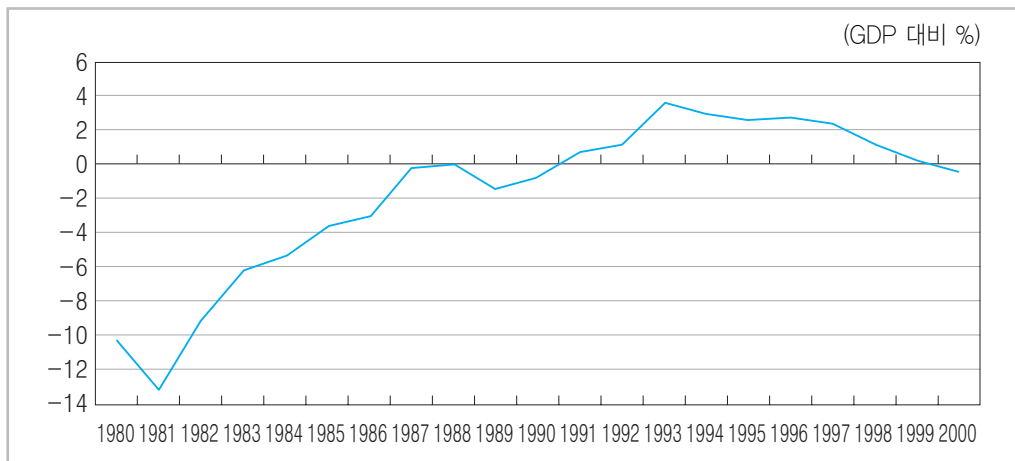
〈표 24〉 부문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1996~2000년 기간)

	전 부문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	기타
France	1.3	0.8	0.5	0.0
Germany	2.3	0.6	1.6	0.1
Ireland	8.4	7.3	1.8	-0.7
Italy	0.6	0.3	0.1	0.2
Spain	0.0	0.2	-0.2	0.0
UK	2.6	0.8	1.9	-0.1
EU-15	1.7	0.7	1.0	0.0
USA	3.1	1.2	2.0	-0.1

자료: EU Commission(2003), p.86.

- 경상수지는 1980년대초 GDP 대비 14% 수준의 적자에서 이후 1990년대 들어 균형을 달성

〈그림 16〉 아일랜드 경상수지



자료: 세계은행, WDI

2.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요인

■ 명확한 비전 제시와 경쟁 유도 정책 추진

- 1987년에 “국가회복 프로그램”(PNR)이라는 노사정 합의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일련의 사회적 협약 정책을 통한 비전 제시

〈표 25〉 아일랜드의 시기별 정책 비전

1990~1993년	경제사회발전협약 (PESP: Program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1994~1996년	작업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협약 (PCW: Programme for Competitiveness and Work)
1997~2000년	파트너십 2000(Partnership 2000)
2000~2003년	공평한 번영을 위한 협약 (PPF: Programme for Prosperity and Fairness)
2003~2005년	지속적인 전진(Sustaining Progress)

-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의 추진
 -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규제를 줄이고 금융, 통신 분야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며, 항공 교통 부문의 민영화도 진행 중
 -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 요소 도입은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방지함으로써 이들 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아일랜드의 경제전반과 기업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규제부담 및 경쟁도 순위는 영국, 미국을 제외한 주요 유럽 국가보다 높음
 - 아일랜드의 규제완화와 경제자유도는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인 1990년대 중반에 여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급속히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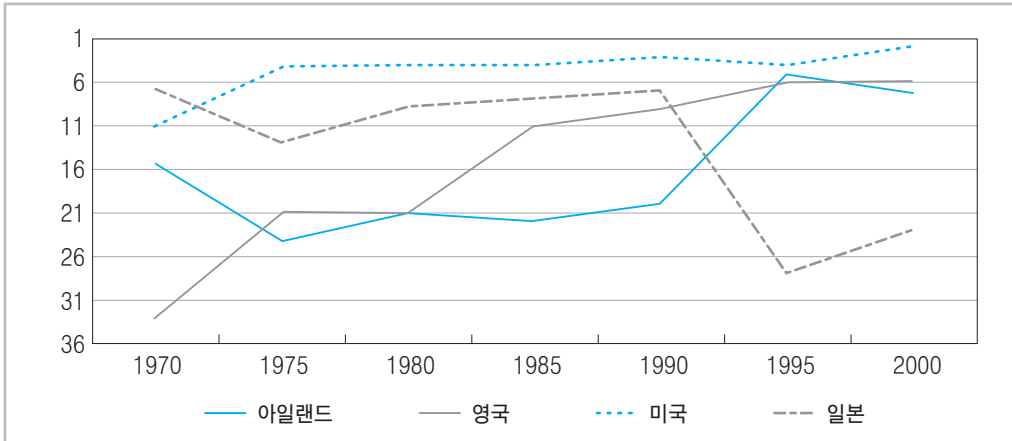
〈표 26〉 규제와 경쟁력지수 순위(2003년 기준)

	규제자유도지수			경쟁력지수		노동시장 규제정도
	규제부담 수준	관료주의 정도	창업 행정비용	지역경쟁 심화 정도	경쟁관련 입법	
아일랜드	2	6	6	13	10	4
덴마크	8	2	8	13	2	2
핀란드	1	1	1	9	1	6
프랑스	13	13	16	15	9	15
독일	14	15	11	2	3	16
헝가리	5	9	5	11	15	3
이태리	16	14	15	12	12	11
일본	14	12	12	4	11	8
한국	9	11	8	5	13	14
네덜란드	11	7	7	5	5	9
뉴질랜드	7	5	3	5	4	7
폴란드	12	16	14	15	16	13
스페인	5	8	12	9	14	10
스웨덴	10	3	8	5	7	12
영국	3	10	3	2	8	5
미국	4	4	1	1	6	1

주: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낮으며, 경쟁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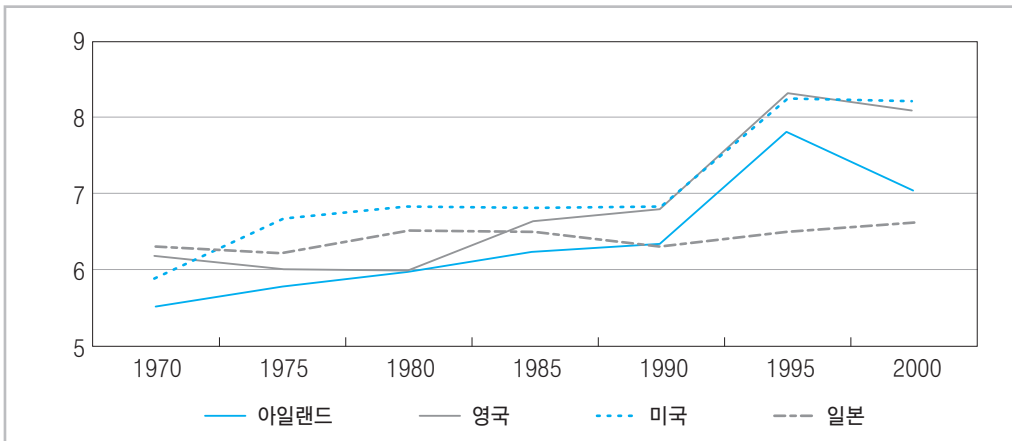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Annual Competition Report 2003*, 2003.

〈그림 17〉 경제자유도 순위



자료: Fraser Institute, 순위가 낮을수록 경제자유도 개선

〈그림 18〉 규제자유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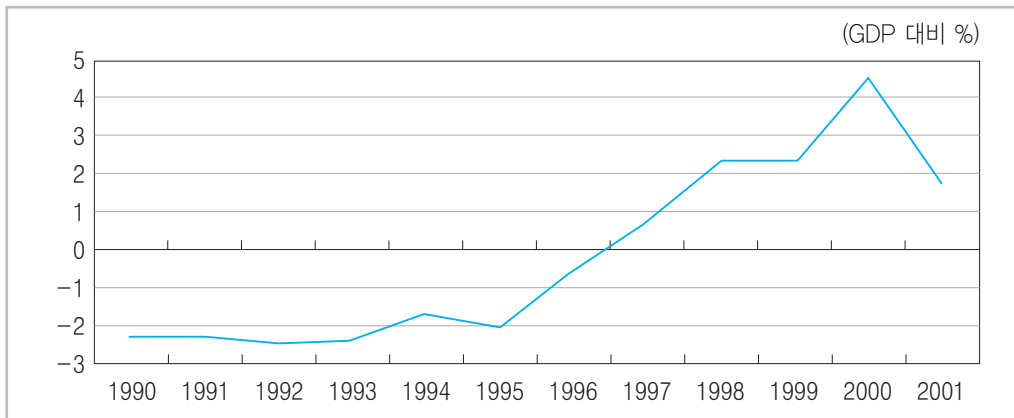


자료: Fraser Institute

■ 거시경제 체질 강화

-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도 세금감면으로 경제주체들의 동기를 고취
 - 이전에는 정부지출이 세수를 훨씬 능가했는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정부지출 축소에 주력하면서 정부지출 감소보다 낮은 폭으로 세금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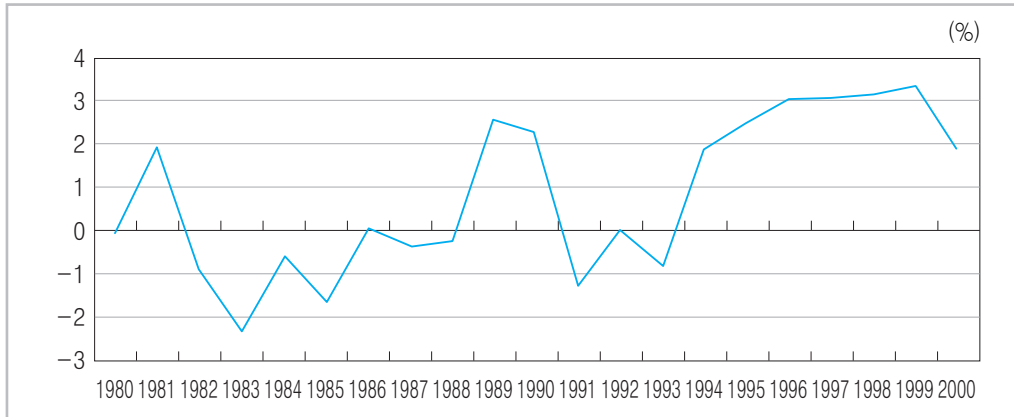
<그림 19> 아일랜드 재정수지



자료: IFS 통계(IMF)

- 1960년대부터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과감한 전환 기조 형성
 - 1965년 영국 아일랜드 자유무역협정(Anglo Irish Free Trade Agreement) 체결
 - 1973년 유럽공동체(Europe Community) 가입
- 투자 비중의 지속적 확대
 - 투자의 GDP증가율 기여도는 1990년대초부터 증가하여 3% 전후의 수준을 유지

〈그림 20〉 GDP증가율에 대한 투자 기여도



자료: EU Commission

■ 생산요소의 안정적 운용

– 노동요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 1987년 이후 합리적 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1980년대 아일랜드의 기업체들의 노조 조직 비율은 평균 50% 이상이었고, 더욱이 단일 연합노조(Irish Congress of Trade Union, ICTU)의 영향으로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노조영향력이 강했음
- 이후 “공평한 번영을 위한 협약”(PPF: Programme for Prosperity and Fairness) 의 일환으로 2000년 6월 28일 아일랜드 정부는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에 대해 공공요금인상 일시적 억제, 주류가격안정 방안 등 소위 “인플레이션 방지 종합 대책”(Anti-inflation package)을 발표함으로써 합리적 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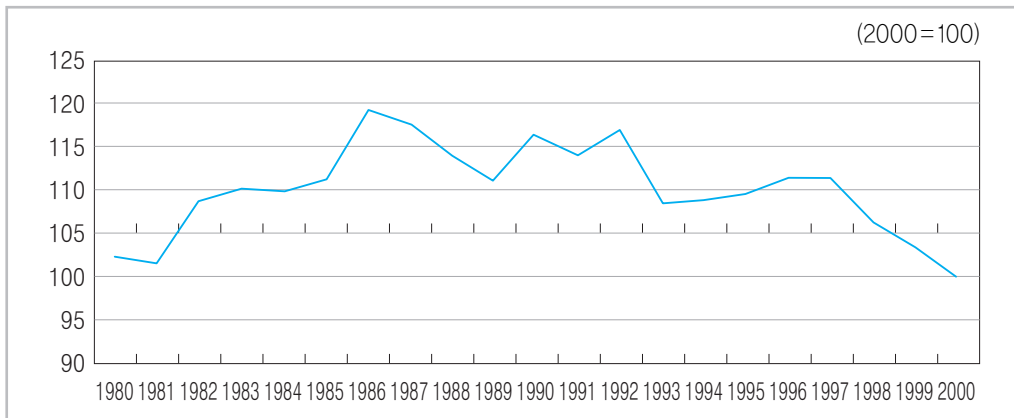
– 자본 확보를 위한 과감한 세제 혜택,

- 법인세 감축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인 시도
-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미국의 40%, 영국의 30%, 프랑스의 34.3%, 독일의 38.2% 등 서유럽 평균 34.0%보다 훨씬 낮음

■ 유리한 대내외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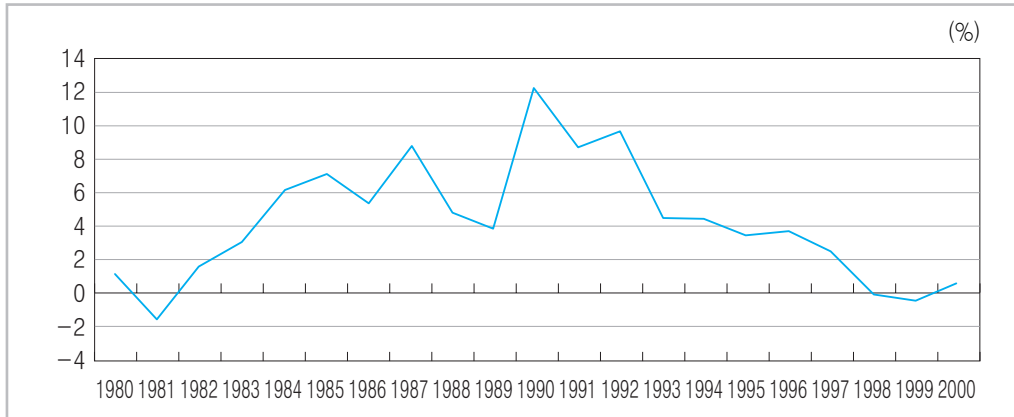
- 미국의 대 EU 투자 증가와 EU 구조기금 배정은 아일랜드 경제발전에 기여
 - 미국을 선두로 의료, 전자 등 하이테크 산업부문으로의 투자급증
 - 1989년부터 아일랜드에 대한 EU 구조기금의 배정은 유효수요 창출, 사회 인프라 조성에 기여
- 적절한 시기에 EU 및 유로경제권에 진입하여 환율 하락,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취함
 - 아일랜드 통화의 주요국 통화 대비 실질환율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하락하여 아일랜드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그림 21〉 아일랜드 실질환율지수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그림 22〉 아일랜드 실질이자율



주: 3개월 실질이자율(GDP 디플레이터)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여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베이비붐으로 인해 여타 유럽 국가가 고령화될 때 아일랜드에서는 근로 가능한 인구가 증가함
 - 근로 가능 연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숙련된 노동력 확보

3. 시사점

- 우리 경제와 유사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아일랜드는 생산요소의 안정적 확보, 개방 정책,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고성장을 이룩함
 - 노동요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자본 확보를 위한 과감한 세제 혜택, 외자유치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용에 있어서 정부 지출, 이전, 보조금 비중을 줄이고 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으로부터 정치논리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운영 등을 지양해야 함을 시사
- 아일랜드의 인구구조는 여타 유럽 국가에 대해 경쟁력 있는 노동력 확보를 가능케 함

- 이는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장기적 대비책이 추후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암시
- 장기적인 개방정책 수립 필요성
 - 아일랜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입지에 맞게 EU나 유로통화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으며, 이로부터 환율, 금리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대세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외경제 판도를 파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IV. 경제 리모델링 전략

■ 성장잠재력 제고

- 최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인적 자본 및 물적 자본의 증가나 활용도를 제고하는 노력도 동반할 필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전제가 투자활성화이므로, 정·재계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²⁾
 - 민간자본과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가 투자확대의 관건이므로 반도체, LCD 등의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신산업은 물론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 등과 같은 서비스업 분야에도 대형프로젝트 투자가 필요
 - 또한 수출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체제를 무대로 신시장 개척이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도모할 필요
 - 정부는 기업도시, BTL 등의 추진에 있어 국내외 자본간 차별이 없는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
 - 원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자의 희망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One-Stop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재원조달이나 경영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국내 대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나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
 -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수요건인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
- 인적자원 활용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³⁾
 - 출산율 저하나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할 필요
 - 특히, 여성인력들이 경제활동에 주저하는 주요 요인인 차별, 출산, 육아, 보육 등을 개선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2) 한국은행(2005), pp.33-35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음

3) 삼성경제연구소(2005), pp.73-110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음

- 또한 사회에 기여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호봉제적 특성으로 인해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을 통해 직장에서 퇴출된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나 연봉제 등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에 노력
 - 기업은 불법노동행위 추방, 근로복지 증진,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상태의 근로자 재고용 및 재취업프로그램 확대, 고용안정 등에 주력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조건을 완화하고 기업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최대한 노력
 - 근로자는 불법파업행위 추방, 노동생산성 향상, 자기개발 노력, 무리한 근로조건 요구 자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에 노력
 - ‘심각한 경영 악화’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정리해고제를 ‘생산성 격차’에 기초한 실질적인 정리해고제로 확대
- 중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
- 중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R&D투자 등의 질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 또한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물적자본 확충에 필수조건임
- 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관계를 증진하고 산학연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
- 생산성 향상이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산업의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대기업은 협력회사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 임직원 양성 및 경영개선 지원 등에 노력하고 중소협력회사는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등 모기업·협력기업간 ‘윈-윈(Win-Win) 전략’ 추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기술 및 부품개발에 노력하고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공유하는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노력
 -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대기업의 기술협력을 가속화하고, 수익공유제나 위험공유제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 구축
 - 모기업의 중소협력기업에 대한 부분자본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
 -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연관관계를 제고하여 수출이나 성장의 고

용증가 및 내수회복에 대한 연결고리 복원에 노력

- 고소득층 및 사회지도층을 경원시하는 ‘반부자정서’ 나 ‘반기업정서’ 등의 사회분 위기는 경제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⁴⁾
 - 경제적 상위부문의 이익이 하위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연결고리를 찾는 데 노력
 - 고소득층이나 부유층의 국내소비를 반기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과 함께, 그들의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으므로 그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해도 소비하고자 하는 레저, 의료, 관광, 요양, 교육 등에 대한 양질의 고급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제공할 필요
-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원리에 의한 퇴출구조 확립
 - 부도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이 두려워 기업회생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부실한 기업과 건실한 기업간의 차별화를 기초로 차단벽을 구축하고 부도사후관리의 체계화에 노력하여 시장의 안정성 도모
 - 또한 정부는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자세를 탈피하고 시장규율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
-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에 노력
 - 북핵문제 등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 및 해외 국가신인도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문제나 이해집단의 갈등 해소에 있어 불필요한 개입이나 소모적인 정치적 쟁점화를 지양하고, 노사정의 동반자적 노력과 법치주의에 기초해 해결 도모
 - 또한 정부는 정책혼선을 배제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화되었던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과거의 자문기구 수준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경제정책결정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
 -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현 경제여건 및 기업현실에 걸맞은 합리성을 견지하도록 노력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혁정책 모색

4) 대한상공회의소(2004), pp.7-12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음

-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기업경영이나 파업행위 등을 철저히 처벌하고 일관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제조업 리모델링 전략

- 기업 자체의 생산성 향상 노력 강화
 - R&D투자 확대
 -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유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 노동일수 확보 및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 강화
 - 선진기술 유치를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강화
- 주력제조업의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선진국과의 수평분업 구도 확대
 - 개도국과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수직분업 구도 유지
 - 개도국 중간기술 및 부품시장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 유지
- 첨단제조업은 기술 주도력 확보 및 표준 선도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도모⁵⁾
 -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하여 신기술을 선점하고 조기 시장 확보
 - 서비스, 신기술이 융합된 세분화된 신산업 출현에 대응해서 친환경 제품, 블록버스터 신약, 혁신적 신소재 기반제품 등을 상용화하는 것이 중요

■ 서비스산업 리모델링 전략

-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채택
 - 금융·회계·법률·컨설팅·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양
 - 질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는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식기

5) 선진산업강국 기획단 & A.T.Kearney(2005) 참조

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서 제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차별화 및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차별화 및 고급화’ 없이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차별화 및 고급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제도적 장벽도 제거
 -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막는 세제 등의 장벽 해소 고려
-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나친 공공성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경쟁원리 도입
 -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공공성 강조로 인해 이들 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이는 이들 분야에 대한 막대한 해외수요로 이어짐
 - 사회서비스 산업에 영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하고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경쟁을 통해서 국제경쟁력 제고
 -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을 수출동력화하는 전략 수립
 - 특히 경쟁력 있는 영리 사회서비스 기업 육성을 통해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산업수요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
-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고 경쟁을 촉진
 -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자본과 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경쟁촉진을 통해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질적 수준 제고
 -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력을 위한 교육, 의료 등의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
- 인프라성 서비스산업의 수요기반 확대
 - 유통·물류·E-Business 등의 인프라성 서비스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그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
 - 인프라 서비스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국내 수요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급성장하는 중국 및 동남아의 비즈니스 서비스수요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

:: 참고 문헌 ::

- 대한상공회의소, 『선진국 경험으로 본 국민소득 2만불 추진전략』, 2004.
- 박진수, 「우리나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전략과 시사점」, 『대은 경제 리뷰』 198호, 2005.
- 산업연구원, 『산업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2005.
- 산업자원부, 「한중간 기술격차, 2010년경까지는 지속 유지될 전망」, 보도자료, 2005. 2. 22.
- 삼성경제연구소, 「매력 있는 한국: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 전략(각론편)」, 국회 시사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정책발표 자료, 2005.
- 서중해 편, 『한국의 산업 경쟁력 종합연구(II)』, KDI 연구보고서 2004-12, 2004. 12.
- 선진산업강국 기획단,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2005. 9.
- 선진산업강국 기획단 & A.T.Kearney, 『역동적 창조국가로의 발전전략』, 2005. 8.
- 한국산업기술재단, 『2005 중국 산업 및 산업기술경쟁력 정보구축사업 연구결과 보고서』, 2005.
-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04』, 2004. 6.
-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한은조사연구』, 2003-2, 2003.
- _____,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조사국 보도자료, 2005.
-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02. 12.
- EU Commission, *The EU Economy 2003 Review*, 2003.
- IMF, Country report, Ireland, 1999.
- National Competition Council, *Annual Competitiveness Report 2003*, Dublin: November 2003.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004. 7.
- UN, *World Population Projects: The 2004 Revision*, 2005.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호.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2년	7.0	7.6	11,499	7.9	6.0	6.6	7.5	5.3
2003년	3.1	5.5	12,720	-1.2	3.8	4.0	-1.2	7.9
2004년	4.7	11.4	14,193	-0.3	3.7	2.1	3.8	1.1
2005년	4.0	7.0	16,291	3.2	4.3	2.3	5.1	0.3
2002년	3/4	6.8	7.4	7.8	5.3	2.4	9.1	-2.4
	4/4	7.5	11.4	5.5	4.2	9.1	9.6	8.4
2003년	1/4	3.7	5.8	0.7	4.0	4.7	2.3	7.7
	2/4	2.2	3.3	-1.5	3.7	4.2	-0.4	7.9
	3/4	2.4	4.2	-2.0	3.5	2.7	-4.6	7.7
	4/4	3.9	8.6	-2.0	3.5	4.3	-2.0	8.3
2004년	1/4	5.3	11.9	-1.3	3.7	2.4	-0.1	4.9
	2/4	5.5	13.6	-0.3	4.8	4.7	6.4	3.8
	3/4	4.7	11.7	-0.7	3.7	2.9	6.8	1.0
	4/4	3.3	7.7	0.9	2.9	-1.1	2.4	-3.3
2005년	1/4	2.7	5.1	1.6	3.2	0.4	2.9	-2.2
	2/4	3.2	5.0	3.0	4.2	2.0	2.7	1.6
	3/4	4.5	7.4	4.0	5.1	1.9	4.3	0.3
	4/4	5.3	10.2	4.2	4.8	4.2	10.2	0.9
2006년	1/4	6.1	9.9	4.8	5.4	3.9	6.9	1.2

무역 · 국제수지

	무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¹⁾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2년	1,624.7	8.0	1,521.3	7.8	147.8	53.9	1,214.1	1,200.4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7.8
2004년	2,538.4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34.7	165.6	2,103.9	1,011.6
2004년 9월	208.3	22.4	181.9	25.2	36.9	28.6	1,744.4	1,151.8
10월	226.6	19.7	204.1	23.4	29.1	25.0	1,783.8	1,119.6
11월	230.8	26.5	203.1	28.9	34.8	28.3	1,926.0	1,048.2
12월	232.0	17.6	209.7	19.0	29.4	22.1	1,990.7	1,035.1
2005년 1월	224.5	18.3	194.5	20.0	44.9	38.8	1,997.0	1,026.4
2월	204.0	6.6	184.0	5.3	15.9	9.5	2,021.6	1,008.1
3월	239.5	13.1	227.8	19.1	30.7	10.5	2,054.4	1,024.3
4월	228.7	6.5	212.4	12.8	23.3	-9.9	2,063.8	1,001.8
5월	231.2	11.0	211.6	18.3	26.1	13.6	2,061.0	1,002.5
6월	237.1	9.5	212.9	14.8	3.7	22.4	2,049.9	1,024.4
7월	232.4	10.6	215.1	17.0	31.7	14.5	2,056.9	1,025.7
8월	233.4	17.9	220.0	21.4	15.9	-4.9	2,067.1	1,031.0
9월	245.2	17.7	227.2	24.9	28.3	16.9	2,067.3	1,038.0
10월	253.5	11.9	226.5	11.0	31.1	26.9	2,073.1	1,042.7
11월	258.3	11.9	238.5	17.4	31.8	22.0	2,082.3	1,036.3
12월	256.3	10.5	241.9	15.4	18.1	5.4	2,103.9	1,013.0
2006년 1월	232.5	3.5	229.5	18.0	14.8	0.9	2,169.3	964.6
2월	237.9	16.6	233.9	27.1	8.3	-7.8	2,159.5	970.9
3월	268.7	12.2	257.3	12.9	2.91	-4.3	2,173.4	971.6
4월	256.2	12.0	241.6	13.7	19.6	-15.3	2,228.9	943.4
5월	280.0	21.1	260.5	23.1			2,246.9	945.6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 · 실업 · 이자율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2년	-0.3(2.3)	2.7(3.7)	3.1	11.9	11.5	12.9	6.59	757.0
2003년	2.2(3.1)	3.6(3.4)	3.4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5	9.5	4.2	5.8	4.71	832.9
2005년	2.1(1.7)	2.7(2.6)	3.7	8.1	6.0	6.0	4.69	1,073.6
2004년 9월	7.5(6.0)	3.9(3.5)	3.2(3.5)	13.8	5.4	6.3	4.10	835.9
10월	7.3(6.1)	3.8(3.5)	3.3(3.5)	6.8	5.9	6.6	4.01	849.1
11월	6.8(6.1)	3.3(2.9)	3.3(3.4)	8.0	4.9	5.9	3.86	863.1
12월	5.3(5.3)	3.0(3.0)	3.7(3.5)	22.7	4.9	6.3	3.73	873.1
2005년 1월	4.1(0.2)	3.1(0.7)	4.2(3.8)	-4.7	5.3	6.1	4.11	903.4
2월	3.2(0.6)	3.3(1.3)	4.3(3.7)	27.7	5.3	5.8	4.63	964.5
3월	2.7(1.0)	3.1(2.1)	4.1(3.6)	8.5	5.3	5.3	4.48	988.2
4월	2.9(1.7)	3.1(2.2)	3.8(3.7)	11.7	5.5	5.4	4.28	955.4
5월	2.0(1.1)	3.1(2.0)	3.5(3.7)	7.4	5.5	5.6	4.12	939.0
6월	1.6(0.6)	2.7(1.6)	3.6(3.8)	11.0	6.0	6.0	4.18	991.3
7월	2.0(1.4)	2.5(2.1)	3.7(3.8)	6.6	7.0	6.5	4.52	1,058.7
8월	1.4(1.7)	2.0(2.4)	3.6(3.7)	9.7	7.1	6.5	4.75	1,101.8
9월	1.6(2.2)	2.7(3.1)	3.6(4.0)	5.8	5.9	6.2	4.92	1,171.0
10월	1.7(2.4)	2.5(2.9)	3.6(3.9)	10.3	6.3	6.2	5.20	1,190.9
11월	1.1(1.8)	2.4(2.3)	3.3(3.5)	7.6	6.3	6.3	5.50	1,253.3
12월	1.7(1.7)	2.6(2.6)	3.5(3.5)	0.9	6.7	6.3	5.49	1,338.8
2006년 1월	2.1(0.6)	2.8(0.8)	3.7(3.4)	24.1	6.5	7.2	5.50	1,379.3
2월	1.7(0.6)	2.3(1.0)	4.1(3.4)	-11.8	6.6	7.4	5.33	1,341.7
3월	1.4(0.7)	2.0(1.5)	3.9(3.5)	5.7	6.6	7.0	5.30	1,331.7
4월	1.5(1.5)	2.0(1.6)	3.5(3.5)		6.8	7.4	5.24	1,415.9
5월	2.7(2.1)	2.4(1.8)	3.2(3.4)					1,388.8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1년	0.7	75.3	6.7	2.6	-1.0	-9.1	22.1	10.0	4.4	14.6
2002년	8.0	78.4	8.3	8.3	21.0	8.4	33.0	11.2	-8.1	24.5
2003년	5.0	78.3	-1.1	-34	-8.7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5	80.4	-0.6	-1.4	6.8	1.4	-3.9	11.1	5.3	14.4
2005년	6.3	79.8	2.6	2.1	1.5	3.4	9.5	5.7	-0.7	9.8
9월	10.6	79.8	-0.8	-2.9	-8.4	1.5	-24.7	19.7	14.4	22.9
10월	5.8	79.7	-2.5	-5.5	-7.1	-0.5	33.1	9.0	-3.6	16.6
11월	9.9	81.8	-1.3	-0.3	1.6	3.0	4.9	5.8	0.5	8.3
12월	4.6	79.7	-0.0	-6.2	-9.9	-1.8	39.9	-0.2	-10.3	5.7
2005년 1월	14.6	81.9	-2.8	0.9	0.7	15.5	9.1	3.6	-0.8	5.4
2월	-7.2	77.2	-1.4	-11.4	-18.7	-3.7	-20.6	-3.3	-1.0	-4.2
3월	4.8	80.9	1.6	-3.4	-3.2	1.9	71.6	4.7	-1.2	7.3
4월	3.6	78.8	1.7	-3.7	-10.0	0.3	25.8	7.8	-1.2	12.3
5월	3.9	78.0	4.2	1.4	-14.5	8.4	51.7	10.5	4.5	13.7
6월	4.0	80.1	3.1	3.8	-12.2	-3.7	37.1	10.6	6.0	12.8
7월	6.8	80.5	3.3	4.1	26.2	4.3	6.3	4.5	-1.6	7.1
8월	6.6	78.6	5.3	6.3	18.3	-0.3	18.3	5.0	-10.0	10.7
9월	7.6	79.0	3.5	4.8	0.1	-1.6	27.8	4.3	-7.7	7.9
10월	7.7	79.3	2.3	4.9	0.7	1.6	-35.3	2.6	-3.3	5.3
11월	11.8	82.1	5.7	8.1	11.7	6.6	3.6	3.0	-2.4	7.5
12월	11.3	79.4	5.4	8.7	42.8	12.6	-17.0	11.3	5.2	5.5
2006년 1월	6.9	83.5	4.1	2.8	2.0	0.1	10.9	2.5	-10.3	8.5
2월	20.6	80.9	2.8	12.3	38.7	2.4	22.2	9.2	-12.8	18.2
3월	10.0	81.5	4.0	5.5	-0.1	9.6	-34.5	5.9	-9.5	11.8
4월	9.5	79.1	3.8	4.3	15.3	7.3	-18.8	2.0	-4.0	5.0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6년 6월 27일

1판1쇄 발행/2006년 6월 30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노성태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